



<韓国>

特許制度と経済発展の相関関係

康&康 国際特許法律事務所
所長・弁理士
康 一字

특허제도와 경제발전의 상관관계

강 & 강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소장・변리사
강 일우

特許制度は発明を保護してその利用を図り経済発展に貢献するという伝統的な仮説を背負って存在してきました。独占排他権という強大な権益を与え技術開発の動機を提供することによって産業競争力を強化するというのが特許制度を導入した国々の確固たる意志です。知識基盤経済への経済パラダイムの変化を経て、大部分の OECD 加盟国が無形資産投資中心の成長戦略に回旋した現時点において、特許制度がその存立理由に添って経済発展の牽引車の役割をうまく遂行しているか点検する必要があります、そのためには特許制度と経済発展の相関関係についての研究が先立ってなさ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

両者の相関関係の分析手段は、巨視的なアクセス方法と微視的なアクセス方法に大別されます。前者はソロー (Solow) の経済成長理論を根拠に、資本と労働の比率、資本と産出量の比率を基に総要素生産性と技術進歩との関係を分析する方法です。そして後者は企業の知識財産権の増加率と生産性の増加率を比較してその相関関係を分析します。この他にも様々な方法が存在しますが、研究結果のほとんどはその二つの関係が多分に複合的であり、技術分野や国家別で多少ばらつきが見られますが、互いに密接な関係を結んで機能していることを証明しています。

特許紛争の盛んなサムスンとアップルは、知識財産権の確保によって企業競争力を築いてきた代表的な企業です。ただ、特許訴訟で見られる両側の攻防や判決に関しては、特許制度が市場独占化をもたらして市場の正常的な機能を妨害す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批判の声も上がっています。知的財産の重要性がこれまでになく重大に思われる今、特許制度の逆機能に関心を寄せるべき時であり、サムスンとアップルの紛争がどのような様相で展開されるのか一層関心が寄せられるところです。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하고 그 이용을 도모하여 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전통적인 가설을 등에 업고 존재해왔습니다. 독점배타권이라는 막강한 권익을 부여해 기술개발동기를 제공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특허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지식기반경제로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를 거치면서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이 무형자산투자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선회한 현시점에서, 특허제도가 그 존립이유에 부응하여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특허제도와 경제발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양자의 상관관계 분석수단은 거시적 접근방법과 미시적 접근방법으로 대별됩니다. 전자는 솔로우 (Solow) 의 경제성장이론에 근거하여 자본과 노동의 비율, 자본과 산출량의 비율을 기초로 총요소생산성과 기술진보와의 관계를 분석하며, 후자는 기업의 지식재산권 증가율과 생산성 증가율을 비교하여 그 상관관계를 분석합니다. 그 외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결과는 그 둘의 관계가 다분히 복합적이며 기술분야나 국가별로 다소 편차를 보이기는 해도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고 기능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특허공방이 한창인 삼성과 애플은 지식재산권의 확보를 통해 기업경쟁력을 구축한 대표적 기업입니다. 다만 특허소송에서 보여진 애플의 특허방침과 관련해 특허제도가 시장독점화를 초래하고 시장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증대된 지금, 특허제도의 역기능에 주목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삼성과 애플의 분쟁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될지도 관심의 고조됩니다.